

《莊子》寓言의 이야기形式과 〈虎叱〉

文 範 斗

— (目 次) —

- | | |
|------------------|-----------------|
| 1. 序 論 | 4. 一方的 對話形式의 論辯 |
| 2. 《莊子》 寓言의 性格 | 5. 老莊의 立點 |
| 3. 두 對立되는 人物의 設定 | 6. 結 論 |

1. 序 論

〈虎叱〉은 論者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반된 주장이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병립되기도 하였다.¹⁾ 작품의 假托與否와 그로 파생되는 해석의 편차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²⁾ 최근, 文永午教授가 제기한, 〈호질〉의 배경철학을 老莊思想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³⁾, 이 작품이 갖는 난해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호질〉의 人物設定과 論辯中心의 구성은 우리의 서사문학적 전통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범이 사람을 꾸짖는 기발한 착상에 空前絶後의 奇文으로 평

1) 〈호질〉의 연구사를 개관한 박기석의 〈虎叱〉(《古典小說研究》 華鏡古典文學研究會, 一志社, 1993)과 丁奎福의 《韓國古典小說史의 研究》(一志社, 1992) 중 연암소설연구사 부분을 특히 참고할 수 있다.

2) 李佑成(〈호질의 작가와 주제〉, 《창작과 비평》 통원11호, 창작과 비평사, 1968)의 중국인창작설과 李家源(《燕巖小說研究》, 乙酉文化社, 1965)의 연암창작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창작주체에 따라 그 풍자의 대상이나 의미가 현격하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3) 文永午, 〈燕巖小說에서의 道教思想 研究〉, 《道教思想의 韓國的 展開》(亞細亞文化社, 1989)

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 淵源에 대한 탐색도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後識에 의거하여⁴⁾ 《莊子》의 <盜跖篇>, <肱篋編> 등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⁵⁾ 또 洪大容의 <盤山問答>이 작품형식과 사상의 측면에서 <호질>의 모델이 되었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있었다.⁶⁾ <호질>의 서사적 연원에 대한 考究는 그 자체로서도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에 대한 釋明이 작품의 인물성격과 이들의 작품 내적 기능, 그리고 修辭的 性格까지도 규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적 의미파악과 관련하여 더욱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호질>이 寓言을 활용한 작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언은 《장자》에서 비롯된 동양의 전통적인 文學修辭 方法이면서, 이를 주로 활용한 敘事體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언 중에는 인물의 설정과 이야기의 구성, 그리고 작가의 주장하고자 하는 기본사상이 하나의 문학적 관행으로 정립되어 후대까지 지속된 경우를 주목할 수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야기 形式을 여기에서는 임의로 《莊子》寓言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장자》에서 비롯된 이 이야기형식의 맥락을 좇아 그 구성적 특징과 저작의 기본의도 및 문학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호질>의 여러 특징들이 이처럼 관행화된 문학양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호질>로 수용되는 과정에서의 변모과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莊子》寓言의 性格

<虎叱>의 寓言의 성격에 관해서는 金明昊教授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⁷⁾ 이 때의 우언은 소위 ‘寓意性(Allegory)을 가진 이야기’라는 修辭的 측면만을 문제삼은 것이다. 물론 우언이라면 寓話와 같이 문학양식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⁸⁾, 이 경우도 역시 수사적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4) 今讀其文 言多悖理 與肱篋盜跖同旨

5) 이가원, 앞의 책,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73)

6) 金泰俊, <호질과 의산문답의 관련>, 《朴園金起東博士回甲記念論文集》 (教學社, 1986), 조동일, <의산문답과 호질>,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양상》(한샘, 1992)

7) 金明昊, 《熱河日記研究》(創作과 批評社, 1990), p.182

동양의 우언은 내력이 상당히 깊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莊子》에서 우언의 개념과 효용성에 대해 처음 이야기되었고, 또 여기에서 실제로 두루 활용되었기 때문에 우언이라고 하면 곧 《장자》 우언을 떠올리게 되었다. 《장자》〈寓言篇〉의 다음 내용을 보자.

내 글에는 寓言이 십분의 구 정도이고, 그 속에 세상에서 중시되는 인물을 빌린 重言이 십분의 칠 정도인 것이다. 그리고 일에 따라 매일같이 한 말들은 자연의 분계와 잘 조화되는 것이다. 십분의 구나 되는 寓言은, 밖의 事物을 인용해 道를 논한 것들이다. 친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仲媒를 설 수 없다. 친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칭찬하는 것은 효과가 그의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다. 사람들이란 자기와 같은 입장에 대하여는 順應하지만, 자기와 같은 입장이 아니면 반대를 한다. 자기와 같은 생각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은 그것을 그르다고 부정한다.

(寓言十九 重言十七 卮言日出 和以天倪 寓言十九 藉外論之 親父爲其子媒 親父譽之 不若非其父者也 非吾罪也 人之罪也 與己同則應 不與己同則反 同於己 爲是之 異於己 爲非之)⁸⁾

위에서 우언의 효용과 운용방법에 관한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언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아버지가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사람들이 잘 믿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들과 그 아버지’라고 한 것은 글을 쓸 때 어떤 교훈적 견해나 사상을 直說의으로 독자에게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럴 경우 독자는 작가의 인격과 학문적 성취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가르치거나 설복시키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말의 설득력이 반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문면에 나서 발언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제삼자나 다른 사물 등에 假托해서(즉 다른 사람이 아들을 칭찬하듯) 作意를 전달하는 이야기 방식을 택하게 된다. ‘밖의 일을 끌어들어서 논한다(藉外論之)’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8) 安秉高, <先秦寓言의 特質>, 《어문학》3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4), p.491.

9) 金學主 驛, 《莊子》(乙酉文化社, 1990) 앞으로 《장자》 본문의 번역은 여기에 따른다

우언의 수사적 성격과 운용에 관해서는 《熱河日記》序의 기록도 참조할만하다. 여기에서는, 글을 짓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易經》과 《春秋》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역경》은 미묘하고 《춘추》는 드러내었으니, 미묘란 주로 진리를 논한 것으로서, 그것이 홀려서는 우언이 되는 것이고, 드러냄이란 주로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것이 변해서 外傳이 기록되는 것이라 했다.¹⁰⁾

《역경》의 64卦 중에서 언급한 물건으로서 용이니, 말이니, 사슴이니, 돼지니, 소니, 양이니, 범이니, 여우니, 또는 쥐니, 꿩이니, 독수리니, 거북이니, 봉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참으로 있었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하진 못할 것이다. 또 인간에 있어서 저 웃는 자, 우는 자, 부르짖는 자, 노래부르는 자나, 또는 눈먼 자, 발 저는 자, 엉덩이에 살이 없는 자, 그 척추의 고기가 벌어진 자들을 언급하였는데, 그런 인간이 참으로 있었다고 생각되는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蓍草를 뽑아서 괘를 벌이면, 그 참된 象이 곧 나타나고 吉凶과 悔吝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미묘한 곳으로부터 드러내는 경지로 지향하는 까닭이었으니, 寓言을 쓰는 이가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이다.

(易之六十四卦所言物 龍, 馬, 鹿, 豕, 牛, 羊, 虎, 狐, 鼠, 雉, 隼, 龜, 鼈 將爲有其物耶 無之矣 其在於人 笑者, 泣者, 眺者, 歌者, 眇者, 跛者, 臀無膚者, 列其寅者, 將爲有其人耶 無之矣 然以揲蓍有卦 其象立見 吉凶悔吝 應若桴鼓者 何也 由微而之顯故也 爲寓言之文者 因之)

《역경》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이나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용이니 말이니 또는 웃는 자니 우는 자니 하는 것들은 모두 작가의 이들은 本意를 대신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된 비유적 존재들이다. 특히 독자들에게 글의 흥미를 높이면서 각인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처럼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하거나, 외모나 행동에 있어서 특이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위의 글 역시 우언이, 실제의 이야기를 가술하는 기사방법인 《춘추》와 달리, 架空의 事象에 托意하는 작법이 중심이 됨을 이야기한다.

10) 立言說教 通神明之故 窮事物之則者 莫尚乎易 春秋 易微而春秋顯 微主談理 流而爲寓言 顯主記事 變而爲外傳

이와 같은 개념 하에서의 우언이라면 寓意性을 띠고 있는 여러 갈래에 속하는 이야기들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花史>나 夢遊錄 같은 작품들을 우언이라고 했다.¹¹⁾ 이럴 때 이들 작품들은 위에서 말한 우언의 개념적 범주 속에 다 포함된다. 따라서 우언은 그 이야기들의 다양성만큼이나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요컨대 우언은, 작가의 의도를 대신하는 사물이나 사람들의 서사 내적 행동이나 언설을 통하여 주제를 寓意하는 문학수사방법을 포함한 서사체에 대한 汎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우언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전제로 하면서, 특히 <장자>의 우언 중에는 특별한 인물설정과 구성방식, 기본사상 등에 관련된 이야기형식이 후대로 지속, 계승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 경우에는 그러한 이야기형식이 일종의 문학관행화되어 서사적 전통으로 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이야기형식은 司馬遷의 <史記> 老莊申韓列傳의 莊周에 관한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다.

莊子は ……그 학문이 無不通知하였으나 요점은 老子의 言說에 귀착하였다. 그가 지은 10여만 언은 대개 寓言에 따른 것이다. <漁夫篇> <盜跖篇>을 지어 孔子의 무리를 비판하였고 노자의 學술을 드러냈다. 畏累虛, 亢桑子の 무리는 다 가공의 이야기지마는 人情世態를 들어 儒子와 墨家를 비판하였다. 비록 당대의 높은 학자라 해도 이를 능히 피하지 못하였다.

(莊子者 ……其學無所不聞 然其要本歸於老子之言 故其著書十餘萬言 大抵率寓言也 作漁夫盜跖胠篋以詆訛孔子之道 以明老子之術 畏累虛亢桑子之屬 皆空語無事實 指事類情 用剽剗儒墨 雖當世宿學 不能自解免也)

위에서 사마천이 인식한 우언의 특징은

- 1) 畏累虛, 亢桑子와 같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고
- 2) 孔子, 墨翟과 같은 높은 학자를 비판 대상으로 삼았으며
- 3) 人情世態에 따라(指事類情) 비판하였다

로 요약할 수 있다.

11) 우언의 一般的 개념과, 우리 나라의 우언 작품에 대해서는 유종국의 논고 (<寓言의 樣式>, <國語文學> 第6輯, 全北大學校國語國文學會, 1986)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본문에 대한 索隱에 따르면

대개 그 책 10여만 언은 다 主客을 세워 그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데 그로 偶言이라고 한다.

(大略其書十餘萬言 率皆立主客 使之相對語 故云偶言)

라고 하여 우언이 주로 主와 客의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상 《장자》우언에 대한 《사기》의 해석은 후대의 작가가 주로 노장사상과 관련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論辯을 개진할 경우 하나의 귀감이 되었을 법하다. 실제로 후대의 노장사상과 관련이 있는 서사체에서 《사기》에서 특징으로 지적된 우언의 이야기형식에 적용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기》에서 지적된 특별한 이야기 형식을 갖춘 《장자》의 우언이 서사적 관행으로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는 뜻이다. 이야기의 형식이 하나의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양식화되었다면 여기에 마땅한 개념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이를 그냥 《장자》우언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그러면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을 보다 구체화시켜 미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두 대립되는 인물의 설정
- 2) 사건의 진행은 주로 대화의 형태를 취함. 특히 이럴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訓話하거나 罵倒함
- 3) 어느 특정한 사건, 관념 등에 比擬하여 비판
- 4) 老莊적 立點에서의 논리전개

우리의 경우 이상의 형식을 갖춘 작품을 살펴보면 비록 많지는 않으나 몇몇 작품의 경우 여기에 의식적으로 잇될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다. 權輿의 文集에 실려있는 <酒肆丈人傳>과 각자 미상의 <寓言>이다.¹²⁾ 물론 일견해도 <호질>의 여러 특성이 여기에 걸맞는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장자》우

12) 유종국은 위의 글에서 우리 나라의 우언을 양식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특히 <우언>과 <주사장인전>을 문답식으로 이루어진 설리적 대화형식이라고 하였다. p.21.

언의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호질>에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어 독특한 문학적 효과를 드러내는가 면밀히 추찰하고자 한다.

3. 두 對立되는 人物의 設定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莊子》寓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두 대립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장자》의 全篇에 수록된 수많은 삽화들은 대개 두 인물 간의 대화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강 살펴봐도 雲將과 鴻蒙의 대화, 孔子와 老聃의 대화, 桓公과 輪扁의 대화, 黃帝와 北門成的의 대화, 顏淵과 師金の 대화, 舜과 丞의 대화 같은 것들이다. 이들 중 앞서 살펴본 《장자》우언의 이야기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廣成子와 黃帝의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진 <在宥篇>, 盜跖과 孔子의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진 <盜跖篇>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한 쪽은 老莊의 無爲之道の 哲理를 직접 개진하거나 그를 상징하는 존재로, 다른 한쪽은 노장적 입장에서 비판받을만한 학자이거나 역시 그와 동일한 성격으로 상징화된 인물이다.

老莊의 哲理를 개진하는 인물은 長壽한 隱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우언편>에서는 이처럼 장수한 은자와 같은 인물들의 입을 빈 경우를 重言이라 하였다. 중언은 우언 중에서 十의 七을 차지한다고 하고, 經緯와 理致를 터득한 故老의 입을 빌어 사람들의 번잡한 논쟁거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¹³⁾ 이들은 작가의 의도를 대신하여 발언을 담당하는 쪽으로 두 인물 중 對話主導의 입장에 선다.

대화주도자의 상대역으로는 《장자》의 경우 주로 당대의 碩儒와 같은 이름난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일 때가 많다. 사마천이 지적한 바처럼 孔子, 墨翟과 같은 사람들이다. 사회적 상층부나 특히 지식계층에 속하는 인물을 상대역으로 설정한 것은 대화의 내용이 고도의 知的 대결로 펼쳐질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을 준용한 후대의 작품들도 이러한 인물 구성의 기본틀은 유지되고 있다.

<酒肆丈人傳>¹⁴⁾에서는 酒肆丈人과 邵康節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주사장

13) 重言十之七 所以已言也 是爲耆艾 年先矣 而無經緯本末 以期年耆者 是非先也

14) <주사장인전>은 권필의 문집에 실려있는 작품이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인은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¹⁵⁾ 작품의 작자평에

주사장인의 말은 비록 사리에 맞지는 않으나 왕왕 老莊과 더불어 합쳐되
니 소위 方外에서 노니는 자가 아닌가.

(酒肆丈人 其言雖若未經 然往往與老莊合 所謂遊方之外者 非耶)

라고 하여 長壽한 老莊의 方外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주사장인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논전을 벌일 인물은 宋代의 理性大家인 邵康節이다. 장수한 은자인 주사장인과 송대의 성리학자 소강절의 대립적 인물설정은 바로 《장자》우언의 인물설정상 전형을 보여준다.

앞서 《장자》우언 양식의 작품으로 거론했던 <寓言>¹⁶⁾의 주된 등장인물로는 東郭先生과 楚나라 公子이다. 楚 公子는 조각하는 기술을 즐겨 천하의 명사를 불러모으는 호사가이다. 이 작품은 앞서의 <재유편>이 등장인물인 黃帝의 정치행위를 비판대상으로 하였고, <주사장인전>이 소강절의 주학문분야인 易學을 비판대상으로 한 것과 대응하여 楚 公子의 조각취향을 비판대상으로 한 것이다. 동곽선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나 광성자나 주사장인과 같은 가상의 은자로 이해할 수 있겠다.¹⁷⁾

“邵雍이 하루는 마차를 타고 꽃을 완상하다가 술집 옆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 백발의 술집 노인이 그를 가리켜, 천지의 조화를 꿰고 음양의 모임을 흠어버리며 天機를 누설한 자라고 매도한다. 이에 대해 소옹은 少時로부터 先王之書를 읽어 40여년을 도리에 어긋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노인은 소옹의 미혹함을 나무라고, 지극한 道의 精髓는 ‘冥昏한 것으로 만물이 化出하고 五穀이 順布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해서 된 것이 아닌데 너 소옹에 와서는 陳搏의 餘論을 도적질하여 先王之學이라 하고 세상을 미혹시켰다고 한다. 소옹은 노인의 가르침에 기색을 펴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15) 吾藏於酒肆 百有餘歲

16) <우언>은 金明德 編의 《韓國漢文小說全集》 卷六(東西文化院, 1986)에 실려있다. 그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楚 孔子는 조각을 즐겨 천하의 재주꾼을 불러모으는 好事家이다. 어느날 실물과 똑같은 원숭이像을 구해 득의양양하고 있었다. 이때 東郭先生이 나타나 無爲의 至道인 無極者의 숨씨는 천하에 대적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무극자의 숨씨는 자연에 근본하고 무위에 체현하며 元氣에 운용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무극자를 부리게 되면 조화가 자신의 기교가 되고, 萬象이 자신의 物이 되어 천지를 빚내고 일월을 쫓아내며 풍운을 걷고 펼치며, 산하를 새기고 트게 된다고 하였다.”

17) 東郭先生이라 한 것은 《장자》의 東郭子綦나 東郭順子를 염두에 둔 명명으로 보인다. 동곽선자는 ‘無爲, 無形의 하늘처럼 虛心하고, 物의 자연스러움에 순응하면서도 眞을 잃

대화주도자가 장수한 은자로 설정된 것은 전개될 이야기의 성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장수했다는 것은 上古時代에서 그 자체로서도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장사상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장수자는 곧 노장적 哲理의 현실적 體得者 또 완성자의 의미까지 포괄한다. 곧 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철리의 구체적 顯現일 수 있다. 비록 가공의 인물일지라도 대화의 내용이 도가적 철리에 관한 것이라면 논쟁상의 권위를 스스로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장자》의 <도척편>의 도척같은 인물은 노장적 득도자로서의 존재의 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물과는 다르다. 이 경우는 작가의 의도를 상징하는 보조관념으로서의 인물성격이 철저히 寓意의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도척이나 광성자 등의 서사적 역할은 동일하다. 즉 광성자 등이 나이가 많음으로 해서, 또는 은자임으로 해서 논쟁상의 권위를 부여받는 것처럼 서사 내적 기능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도척도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도척 역시 공자에 대해 논쟁상 우위에서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도척은 은자와 같은 자연스런 권위가 없는 만큼 도척으로서의 호협성이라는 事前 설정이 필요했다.

<호절>에서의 범의 성격은 우선 문득 보기에도 도척과 닮았다. 이가원교수가 <도척편>에 범에 대한 언급¹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호절>의 범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그러나 도척과 범의 동일성은 작품의 등장인물의 성격상 역할과 서사적 기능의 측면에서 찾아져야 한다.²⁰⁾

도척은 사람의 肝을 내어먹는 등의 포악성을 지닌 當代의 大盜로 표현되고 있다. 줄게 9천을 거느리고 천하를 橫行하면서 제후들의 영토를 침범하고 털었다. 집담에 구멍을 뚫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의 소와 말을 훔쳐오고 남의 부녀자들을 약탈하였다. 이익을 탐하느라고 부모도 잊어 부모형제를 돌아보지 않았고 조상들을 제사지내지도 않았다.²¹⁾ 그래서 孔子가 그를 설복시키기 위해 만나기를

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物을 포용하는 자'라고 하였다(<田子方篇>). 또, 동광 자기는 顔成子游의 스승으로, 안성자유가 그에게 배우게 되니 物에 순응하고 그 근본을 알며 9년이 지난 후에는 영묘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寓言>)

18) 공자가 도척을 만난 후 도척의 형인 柳下季에게 “丘所謂無病而自灸也 疾走虎頭 編虎須 幾不免虎口哉”라고 하였다.

19) 이가원, 위의 책.

20) 도척과 범의 성격상 동일성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는 이재수의 위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칭했던 것이다. 도척의 이런 성격은 상식적인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한 문제를 지닌 인물이다.

<호질>에서의 범도 실상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범이라는 산중 猛獸를 대 화주도자의 위치에 놓은 것은 일단 논쟁상의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적 배려이다. 도척이 도척으로서의 호협성으로 두 대립적 인물의 대화에서 논쟁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도척이 호협성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무도한 도척이라는 부정적 측면까지 지니고 있는 점과 같이 <호질>의 범의 성격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태까지의 연구에서 범의 성격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 방향으로 해석되어 왔다. 즉 범은 絶對의 神格的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범의 人-物을 통효라는 전지 전능성은 뚜렷한 사실이지마는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에 있어서 그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복선이 마련되어 왔다.

범은 작품의 서두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인간세계와 격리된 곳의 피안의 존재가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다른 여러 맹수들과 함께 물고 물리는 순환고리로 엮여 있다. 서두의 장황한 기술은 실상 범의 신격성을 배제하고 인간의 문제적 속성을 지닌 차원으로 낮추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배려라고 본다. 더구나 범은 인간의 六畜까지도 잡아먹어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범은 산중의 영물로 인간에 대한 외경적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린 똥냄새에 상을 찌푸리고 먹을 것을 가려챌기는 속물이다. 도척이 사람 간을 내어 먹듯이 역시 사람을 잡아먹은 결과로 倡鬼가 불기도 했다.

그러면 도척이나 범과 같이 《장자》우언에서 왜 문제있는 인물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비판하는 자가 일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신격적 존재일 때는 그 권위에 의해 매도당하는 자의 卑俗性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매도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공박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하는 자가 도척이니 속물근성의 범이니 하는 등의 문제있는 인물같다면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질타한다는 것이니 매도당하는 자의 비속성이 더 커지게 된다. <호질>의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있는 범에게까지 야단맞는 위인이니 오죽하겠는가 하는 독자의 판단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21) 盜跖從卒九千人 橫行天下 侵暴諸侯 穴室樞戶 驅人牛馬 取人婦女 貪得忘親 不顧父母兄弟 不祭先祖

다음은 범의 상대역인 北郭先生을 보자. 북곽선생은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한 글이 일만권이고, 또 九經의 뜻을 부연해서 책을 엮은 것이 일만오천 권이나 되어 天子가 그의 義를 아름답게 여기고, 諸侯들이 그의 이름을 사모하는 碩德之儒라고 하였다.²²⁾ 이러한 북곽선생의 성격은 《장자》우언에서 훈화받거나 그들이 각각 몸을 두고 있는 일에 관련하여 비판받음을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곽선생은 儒者로 성격화된만큼 그러한 신분상의 관련된 일이 작가의 비판대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장자》우언은 대개 삼단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대립되는 인물이 서로 조우하여 본격적인 논전을 펼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 뒤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앞부분은 두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시됨을 예상할 수 있다. 두 인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야만이 대화의 성격도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라도 독자가 이미 그들에 관한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라면 그런 설정이 불필요할 것이다. 황제나 공자, 소강절과 같은 경우이다. 앞서 말했듯이 重言의 故老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이들의 존재적 의미는 구현된다. 문제는 도척이나 초나라 공자와 같이 상징화되어 있는 인물의 경우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遭遇 이전에 논변의 내용을 끌어갈 성격상의 묘사가 필요하였다.

<호질>의 경우도 매도하는 쪽이나 매도당하는 쪽이나 모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상징화되어 있다. 따라서 앞부분에 이들에 대한 성격화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작가의 목적이 특별히 매도당하는 쪽의 비속화에 있었던 만큼 북곽선생에 대한 사전의 성격화장치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 범의 저녁식사거리로 碩德之儒를 권하는 창귀들에 대한 범의 발언에서부터 東里子와의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호질>은 앞서 예거한 작품에 비해 이 부분에 대한 비교적 다양한 구성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문학적 효과가 배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一方的 訓話形式의 論辯

《장자》우언이 대립되는 두 인물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도 누차

22) 北郭先生 行年四十 手自校書者萬卷 數衍九經之義 更著書一萬五千卷 天子嘉其義 諸侯慕其名

이야기하였지마는 본 항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대화라고는 하지마는 대개 노장적 인물이나 그로 상징화된 인물이 상대방 즉, 학자와 같은 자를 일방적으로 訓話하거나 屬倒하는 형식을 취한다. <호질>도 역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李家源教授는 역시 <도척편>의 語氣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 역시 <장자>우언의 일반화된 논리전개의 방법이었고, 후대의 같은 양식의 우언에서도 항용 발견된다. 우선 <장자><재유편>과 <도척편>에서 광성자가 황제를, 또 도척이 공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자.

“당신이 물어보고자 하는 사물의 바탕인데, 당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사물의 지꺼기이오. 당신이 천하를 다스린 이래로 구름이 모여들지 않고 서도 비가 오고, 풀과 나무는 단풍이 들지 않고도 낙엽지며, 해와 달의 빛은 더욱 흐려지게 되었소. 당신처럼 간사한 마음으로 말이나 번지르르게 잘하는 사람이 또 어찌 至道를 얘기할 수 있겠소?”

(廣成子曰 而所欲問者 物之質也 而所欲官者 物之殘也 白而治天下 雲氣不待族而遇 草木不待黃而落 日月之光 益以荒矣 而佞人之心翦翦者 又奚足以語至道)²³⁾

“이 사람이 魯나라의 위선자인 孔丘가 아니냐? 내 대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는 말을 만들고 얘기를 조작하면서 함부로 文王과 武王을 칭송하고, 나뭇가지처럼 장식이 붙은 판을 쓰고, 허리에는 죽은 소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띠고 다니며, 부질없는 소리를 멋대로 지껄이면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먹고 살고, 길쌈하지 않고도 입고 지낸다. 입술을 놀리고 헛바닥을 차면서 멋대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어 천하의 군주들을 미혹시키고 천하의 학자들로 하여금 학문의 근본으로 되돌아 가지 않게 만들고 있다. 함부로 효도니 우애니 하는 덕성을 정해놓고서 諸侯들에게 요행히 인정을 받아 부귀라도 누리볼까 하고 있다. 그대의 죄는 참으로 매우 중하다. 빨리 뛰어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대의 肝으로 점심반찬을 삼겠다.

(此夫 魯國之巧僞人孔丘非邪 爲我告之 爾作言造語 妄稱文武 冠枝木之冠 帶死牛之脅 多辭繆說 不耕而食 不織而衣 搖唇鼓舌 擅生是非 以迷天

23) <莊子> <在宥篇>

下之主 使天下學士 不反其本 妄作孝悌 而僥倖於封侯富貴者也 子之罪大極重 疾走歸 不然 我將以子肝 益畫舖之膳)²⁴⁾

이상에서 보듯이 대립되는 두 인물 중 대화주도자가 일방적인 권위를 지니고 상대방을 위압적으로 혼도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주사장인전>에서 주사장인이 소강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주사장인은 天津橋 上の 酒肆에서 소강절을 대면하자 마자, “그대는 천지의 조화를 끊고 음양의 모임을 흩어버리며 神道の 機密을 누설하여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취하는 자가 아닌가? 너와 같은 자를 옛부터 天刑之民이라고 한다”²⁵⁾하고 大叱한다. 또 <寓言>에서도 흡사 실물과 같은 원숭이의 조각을 구하여 의기양양하는 楚 公子에 대해 “공자는 그 末技를 구했구료”²⁶⁾라고 하여 말을 꺼집어 낸 후 無爲而無不爲의 장황한 설변을 토한다. 그리고는, “(그대는) 이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나무와 돌에 새기는 것으로 기술의 지극함으로 이르니 심하도다. 그대의 우매함이여!”²⁷⁾하고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그러면 <호질>을 보자. 범은 동통에 빠진 복곽선생을 만나자 마자 코를 싸쥐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에, 앞에 가까이 오지 말렷도다. 앞서 내 들은 즉, 儒란 것은 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고녀. 네가 평소에는 온 천하의 나쁜 이름을 모아서 망녕되이 내게 덧붙이더니 이제 다급하매 낮간지럽게 아첨하는 것을 그 뉘라서 끝이 들겠느냐?

(母近前 囊也 吾聞之 儒者諛也 果然 汝平居 集天下之惡名 妄加諸我 今也 急而面諛 將誰信之耶)²⁸⁾

범이 복곽선생을 통매하고 공박하는 語氣의 실상은 보아 왔듯이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의 맥락 속에서 찾을 때 분명해진다. 이것은 특별히 <도척편>의 영

24) <莊子> <盜跖篇>

25) 汝非折天地之和 離陰陽之會 漏神之機 洩道之密 以取媚於世者耶 若汝者 古謂之 天刑之民

26) 公子之求巧末矣

27) 不知有此 而乃以雕鏤木石 自謂巧之至也 甚矣 其昧也

28) 李家源, 校注, <李朝漢文小說選>(普成文化社, 1978), 이후의 본문 해석은 여기에 따름

향이라 속단할 것 없이 이미 정형화된 서사적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훈화형식의 대화법과 인물구성을 洪大容의 <鑿山問答>와 관련시키고, 작품의 기본사상 역시 <의산문답>의 일부 내용인 人物性同論에 접목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²⁹⁾ 물론 <의산문답>과 <호질>은 형태상 상당히 닮아 있다. 그러나 서사적 모형에 관해서 말한다면 <의산문답>까지 포함하는 보다 근원적인 데에서부터 천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의산문답>의 인물구성과 논설의 태도도 <장자>우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 우선 虛子와 實翁이라는 등장인물의 명명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虛와 無, 實과 有의 문자적 낱양스는 <장자>우언의 의도적 수용을 말해준다. 특히 허자가 말하는 鑿巫閭山에 거하는 實翁은 그 모습이, ‘생긴 모양은 土木과 같고 음성은 笙簧이나 큰 쇠북소리와 같으며, 홀로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며 大麓의 숲 속에 앉아서도 미혹되지 않는’³⁰⁾ 賢者라고 하였다. <장자>우언에서 노장적 논변을 담당하는 대화주도자의 상징화된 인물상을 보는 듯하다. 허자 역시 ‘은거하여 독서한지 30년만에 천지의 조화와 性命의 미묘함을 깊이 연구하고, 五行의 근본도리와 儒, 佛, 道 三敎의 심오한 뜻에 통달하였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스려 바로잡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심오한 경지에까지 파고들어 원류를 통찰하였다고 하였다.’³¹⁾ 역시 대화주도자에 의해 학문적, 정치적 迷妄이 비난받는 공자나 황제, 소강절의 성격과 다를 바 없다. 또 실용이 허옹을 비판하고 훈도하는 구성과, 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내용 등은, 無爲者가 有爲者를 훈화하는 <장자>우언의 대화법과 상통하고 있다. 대화주도자의 일방적 권위에 의한 훈화의 일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실용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참으로 그대가 道術에 흠해 있는 것을 알겠소. 슬프다, 도술이 망한 지도 오래로다…… 지금 그대는 겸양하고 겸손한 양 꾸미는 것을 스스로 여긴 것이라 생각하고, 생긴 모습과 음성만으로 사람을 현자에 비유하고 있는데, 생각이 虛하면 그 예절도 허한 것이 되며 예절이 허하면 매사에 허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며, 자기에게 허하면 남에게 허하며, 남에게 허하게 되면 천하만사가 허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요.

29) 金泰俊, 조동일, 위의 책 참조.

30) 吾見夫子 土木之形 笙簧之音 遊世獨立 不迷於大麓 吾以是之夫子之爲賢者也

31) 隱居讀書三十年 窮天地之化 究性命之美 極五行之根 達三敎之蘊 經緯人道 會通物理 鉤深測奧 洞悉源委

도술에 혹하면 반드시 천하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소.

(貴翁昂然而笑曰 吾固知爾有道術之惑 嗚呼哀哉 道術之亡久矣…… 今爾飾讓僞恭 自以爲賢 見形聽音 擬人以賢 心虛則禮虛 禮虛則事無不虛 虛於己則虛於人 虛於人則天下無不虛 道術之惑 必亂天下 爾其知之乎)

한 편으로 <의산문답>에서 문제된 人物性同論이 <호질>의 主題로 그대로 수용되었는가 논의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湖洛論爭으로 알려진 人物性同異論은 17,8세기 약 100년간에 걸친 심오한 철학적 논쟁거리였다. <의산문답>은 실학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담고 있으면서 인물성동론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고 있다. 그런데 <호질>의 저작이 <의산문답>의 일부 내용인 인물성동론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인물성동론은 당대 碩儒들의 知的 論戰이었던만큼 어느 일방에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韓元震의 人物性相異論과 李柬의 人物性俱同論에서 비롯해서, 李顯益과 魚有鳳의 논란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쟁쟁한 학자들의 고금을 꿰뚫는 논설이 펼쳐졌다.³²⁾ 그런데 僞學阿諛者로서 寡婦의 방을 넘보다 뚝통에 빠진 爲人으로 그 반대론자를 비하시켰다는 것은 얼른 수궁이 가지 않는다. 반대론자에 대한 비판이 필요했다면 실용과 허자처럼 상호 논변적 대립관계로 설정되는 편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실상을 따지자면 <호질>에는 분명 인물성동론적 논설을 두루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이가원교수와 李在秀교수 등에 의해서 일찍부터 고찰된 바가 있다.³³⁾ 그러나 작품의 인물성동론적 논리적개는 당대 호락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보다는 <장자>우언의 일 특징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즉, 범의 입을 벌여 주체를 유도해 나가면서 범의 중심한 세계의 속성을 인간의 그것에 대응시킨 것은 <장자>우언의 수사적 특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자>우언에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혼화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논리적 전개 자체도 비유적 성격을 띤다. 대개 대화의 쌍방이 관련되어 있는 신분이나 직업이 그 비유의 보조관념으로 이용된다. 도척은 공자가 자신을 순화시킬 목적으로 일방의 諸侯職을 천거하자 공자를 포함한 上代の 성인, 정치가들의 인위적

32) 裴宗鎬, <韓國儒學史>(延世大學校出版部, 1978)

33) 이가원, 이재수, 위의 책.

정치행위가 빛은 부정적 결과를 비유적으로 열거하여 공자의 제의를 일축한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행위의 표상인 孔丘를 왜 盜丘라 하지 않고 자신을 盜跖이라 하느냐 하면서 되레 반문한다. <주사장인전>의 주사장은 술빚는 노인이다. 그는 소강절을 비판하기 위해 술빚는 것으로 비유를 삼는다.

내가 酒肆에 숨어 지낸지 백년이 넘었다. 하루에 수십석의 술을 빚지만 그 맛이 다르지 않다. 술을 구하는 자가 옆의 주사로 가지 않는 것은 어떤 까닭 인고? 그것은 내가 술의 본성을 능히 알아 거기에 맞춰 빚어내기 때문이다. 내가 만물에 있어서 오직 술밖에 모르니 道를 술에 비유하면 좋겠구나. 대개 술이 처음에는 혼연한 기운 뿐이다. 여찌 전국이다, 무잡하다. 진하다, 맑다 하는 것이 있겠는가? 이를 거르고 따르고 누르고 용수로 받치고 한 후에 淸濁이 나누어지고 전국이던 것이 무잡한 것으로, 진한 것이 맑은 것으로 술의 본성이 옮겨가는 것이다. 대개 至極한 道의 영김도 술의 渾然함과 같지 않겠는가? 伏羲가 이를 거르고 文王이 따르고 孔子가 누르고 지금 그대가 또 용수로 받쳐낸다. 이에 나는 窈冥한 것이 드러나고, 昏默한 것이 밝혀져서 至道가 해쳐질까 두려워 하는 것이다.

(吾藏於酒肆 百有餘歲 所釀日數十石 而其味不爽 故凡求酒者 不之旁舍 何則 以能知酒之性 而順以成之也 吾於萬物 唯酒之知 吾將以酒喻道 可乎 大酒之始也 渾然一氣耳 烏有所謂 醇漓厚薄者哉 至於釀之漉之壓之藹之 而後淸濁分焉 於是醇者以漓 厚者以薄 而酒之性遷矣 夫至道之凝 非酒渾然歟 伏羲釀之 文王漉之 孔子壓之 而今子又將藹之 吾恐窈冥昭然 昏默者 的然 而至道鑿矣)

<장자>우언에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架空으로 설정된 대화당사자들은 당연히 다음에 개진할 논변의 내용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을 특별한 직업이나 신분과 관련시킨 것은 그것을 보조관념으로 하여 작가의 본의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우언>에서도 동곽선생은 초나라 공자의 조각취향을 비유로 無爲之道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무릇 無極者의 숨씨는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송곳으로 새길 수도 없습니다. 文彩를 그려넣지도, 깎

털로 장식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에 근본하고 無爲에 體現하며 元氣에 운용됩니다. ……무릇 무극자를 부리게 된다면 조화가 내 기교가 되고 萬象이 내 물이 되어 천지를 빚어내고 일월을 갈아내며 비바람을 걷고 펼치며 산과 강을 새기고 터서 物物마다 다 나의 하는 일이 되어 부리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夫無極子之巧 視不以目 運不以手 思慮不以心知 電琢不以椎鑿 無續彩而文 無毛羽而飾 本乎自然 體乎無爲 運乎元氣…… 夫得無極子爲役 造化爲我技 萬象爲我物 陶鑄天地 磨礱日月 卷舒風雲 琢挾山河 物物皆我之爲 而我未嘗有所爲)

역시 조각하는 구체적 사실을 비유로 하여 형이상학적 관념을 이끌어내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논리전개의 방법을 <장자>우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호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범의 성품이 사람보다 어질지 아니하나? 그리고 범은 나무와 푸새를 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으며, 강술같은 좋지 못한 것을 즐기지 않고, 젓이나 알같은 자질구레한 것도 차마 먹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는 산에 들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 나가면 마소를 사냥하되, 아직 口腹의 累를 입거나 음식의 訟事를 일으키거나 한 일은 없으니, 범의 도야말로 어찌 광명, 정대하지 않느냐.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너희들 사람은 범을 미워하지 않다가도, 범이 만일 마소를 먹는다면 사람들은 원수라고 떠들어대니, 이것은 아마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은혜로우이 없지만, 저 마소는 너희들에게 공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나. 그러나 너희들은 저 마소의 태워주고 일해주는 공로도, 사랑하고 충성하는 생각도 저버리고 다만 날마다 푸죽간이 미어지도록 이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뿔과 갈기까지 남기지 않고도 다시금 우리들 노루와 사슴을 토색질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들에서도 끼니를 굶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이를 공평하게 처리한다면 너희를 먹어야 하겠는가, 놓아 주어야 되겠는가.

(由是觀之 虎之性 不亦賢於人於 虎不食草木 不食蟲魚 不嗜麋藁悖亂之物 不忍字伏絀瑣之物 入山獵麋鹿 在野畋馬牛 未嘗爲口服之累 飲食之訟 虎之道 豈不光明正大矣乎 虎之食麋鹿 而汝不疾虎 虎之食馬牛 人爲之讐焉 豈非 鹿之無恩於人 而馬牛之有功於汝乎 然而不有其乘服之勞 戀效之誠

日充庖廚 角蠶不遺 而乃復侵我之麋鹿 使我乏食於山 缺餉於野 使天而平
其政 汝在所食乎 所捨乎)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범의 이야기는, 범을 중심한 동물계의 여러 생태적 속성에 관련된 것들이다. 동물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조화와 질서, 의리 등이 오히려 인간사회에서는不在하다는 성토이다. 앞서 보았듯이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상의 중요한 특징은, 임의로 설정된 인물이나 사물의 특기나 속성을 비유로 하여 작가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대화주도자인 범이, 그 자신이 속한 동물계의 여러 속성들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한 것은 이 이야기형식에 준용한 결과라고 보겠다. 물론 이 때도 동물의 세계는 논리상 보조관념으로 가능하다. 주사장인의 술이나 동곽선생의 조각, 도척이 거론한 上代의 정치행위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범의 입으로 전개되는 동물세계와 인간사회에서 문제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인간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의 논설은 人-物 간의 상황적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호락논쟁상의 인물성동론적 관점에서 그 동질성 자체를 논변의 궁극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인간사회의 여러 문제를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동원된 수사의 한 방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5. 老莊의 立點

《장자》에 실려 있는 우언들은 궁극적으로 無爲之道の 道家思想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다. 비유적 방법을 즐겨 이용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체화시켜 현실의 생활감각에 맞게 독자를 설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우언편>의 진술처럼 논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 등이 그것이다. 說理的 訓話形式의 우언 즉, 《장자》우언은 특히 그러한 본래의 목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화식 구성의 논리적 설득력이나, 대화주도자의 비유방식 등은 형이상적 철리를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내면서 주제의 심각성을 저해하지 않는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노장사상은 朝鮮朝에 와서도 일부 체제 외적 隱逸處士들의 사상적 귀속처로서 뿐만 아니라 館閣文人들에게조차 일종의 낭만적 취향으로 수용되었다. <주사

장인전>이나 <우언>은 이들 중 특별히 노장의 사상 체계에 침혹한 학자에 의해 쓰여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주사장인전>의 작가 권필의 노장사상에 대한 경도는 이미 밝혀졌지마는³⁴⁾ <우언>의 작가 역시 여기예의 기호가 남달랐었을 것 같다. 특히 <우언>에서 노장적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 설정된 우의적 장치의 기발한 착상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우언>에서는 동각선생의 발언을 통해 老莊의 至道를 상징하는 ‘無極子’라는 의인화된 추상적 관념을 제시하고, ‘무극자를 맞고자 한다면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私念을 끊고 욕심을 버리며 그 가운데 사사롭고 넘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후에 ‘그 보고 들은 것을 순전히 할 수 있고, 한 번 動作하는 것과 方圓과 動靜이 無爲而無不爲하여 하늘의 법칙이 합치되어’ 무극자는 공자의 부림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³⁵⁾ 조각이라는 인위적 조작행위를 비유적으로 설정하여 無爲하나 無不爲의 경지에 이르는 노장적 지도에도 귀결시키는 논리전개가 특별하다.

<주사장인전> 역시 선천예언의 녹명학으로 왜곡된 소강절의 상수철학을, 주사장인이 술의 혼연일체한 성질에 비유한 무위론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⁶⁾

이처럼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은 발생시의 목적과 같이 주로 노장적 무위 지도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의산문답>과 같이 작품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인물의 성격은 《장자》우언에서 빌어왔으나 論點은 전혀 다른 쪽에 둘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호질>의 경우는 어떠한가. <호질>은 지금까지 燕巖의 實學思想과 관련시켜 주제를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실제로 <호질>에서의 범의 발언 중에는 노장사상이 지향하는 궁극적 귀결과 동일한 경우를 두루 찾을 수 있다. 이점은 黃滄江教授께서 이미 범의 비판을 ‘문화비평적’이라고 하고 ‘인위적인 법에 대하여 無形의 法, 즉 自然의 법의 정신’을 내건 것이라고 해석한 것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³⁷⁾ 또 원형갑교수는 이를 ‘연

34) 줄고, 《석주권필문학의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35) 公子必欲致之 莫若潔齋洗心 屏私慮 絕考慾 不以私爲汨乎其中 湛然獨與神明居 如是三月 無極者之居隱然見乎前矣 然後又能純其視聽 一其動作 方而圓 動而靜 無爲而爲不爲以合乎天則 然後無極者 乃始爲公子役矣

36) 줄고, <權譯의 酒肆丈人傳 研究>, 《어문학》51(한국어문학회, 1991) 참조.

37) 黃滄江, 《朝鮮王朝小說研究》(檀國大學校出版部, 1991), p.353.

암의 反人間的, 反理性的 自然思想'의 토로하고 하였다.³⁸⁾ 특히 文永午教授의 견해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만하다. 즉 <호질>의 주제를 無爲之治와 有爲之治의 우열을 虎와 北郭을 등장시켜 격렬한 논쟁을 벌여 최종적으로 무위지치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범을 아예 무위지치를 대표하는 존재로 보고 범의 북곽선생에 대한 질책을 노장사상에 입각해서 自然隨順論, 萬物一本論, 反戰思想, 反知思想 등의 기본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³⁹⁾

그러나 <호질>이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을 준용하고 또 논리의 설정이 노장사상과 一軌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 주제의식을 이로써 해석하기에는 아무래도 주저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無爲而無不爲라는 處世主義와 自然之治의 無政府의 政治論이 중심이 되는 도가사상을 실학의 태두인 연암에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소박한 물음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질>의 주제부터 살핀 후에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옳겠다. 보다 정밀한 천착이 있어야 하겠으나 대강 <호질>의 주제는 유가 사상이라는 특정 관념에 대한 비판이기 보다는 인간사회의 부조리 전반에 걸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범은 인간이 지닌 온갖 사회악과 생리적 악행을 열거하여 통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특별히 <장자>우언이라는 이야기 형식을 빌어 쓴 까닭이 이해될 수 있다. 즉 <장자>우언이 관행적으로 노장사상을 발양시키는 목적에 활용된 점과, 이 때의 노장사상이 원칙적으로 인위적 拘束과 文明社會의 逆기능에서 그 논리의 立點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호질>의 작가가 의식했던 노장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사회의 온갖 作爲의 行態를 비판의 的으로 할 수 있는 사상적 특성에 있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이 때의 노장사상은 어떤 사안을 보는 기준과 원칙에 해당하는 관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노장적 기준과 원칙의 가장 적절한 문학양식적 틀이 바로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임을 연암이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은 호질 중 끝부분에 보이는 문필행위에 대한 비유적 비판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⁴⁰⁾ 그 내용은 글쓰는 이가 글을 사육을 채우거나 曲學하여 권력에

38) 원형갑, <虎叱의 제보와 燕巖의 문학관>, 《法山宋順康教授華甲論叢》, 1991. p.p.284~287.

39) 문영오, 위의 책 p.p.284~287.

40) 是猶不足以逞虐其焉 則乃吮毫毫 合膠爲鋒 體如橐心 長不盈寸 淬以烏賊之沫 縱橫擊刺

阿諛하거나, 空疎한 이론으로 시간만 낭비하거나 또는 반대자에 대한 論斥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즉 문필의 부조리와 그 역기능을 두루 제시한 것에 머물렀다. 이 이야기에 대한 작가의 궁극적 의도를, 문필행위는 사악의 원인이니 따라서 이를 전혀 배제하여 원시적 반문명의 상태로 회귀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말하자면 비록 비판의 立點은 노장적 논리와 동일시할 수 있더라도 그 대안까지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이 범의 이야기이다. 연암이 그 대안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소설 내에서 쉽게 포착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의 해답을 유보함으로써 〈호질〉의 소설적 긴장감을 높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혹 정말 도가적 絶對無의 경지에 소요유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연암의 실학자적 위치를 고려하여 굳이 소설 외적인 상황을 예상하자면, 그러한 사회적, 문명적 부조리를 직시하고 이를 근본부터 毀廢하여 새로운 실학시대의 정신문화를 개창하자는 의도가 깔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의 전반적 병리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이면서도 비판의 구체적인 대상이 왜 하필 석덕지유인 복락선생이었는가. 그것은 주로 유학자를 상대역으로 설정해온 우언의 양식적 틀에 조응시키면서, 한편으로 그러한 인간사회의 모든 해악이 부패한 儒家의 偽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寓言은 작가 자신이 文面에 나서지 않고 제3자나 다른 사물에 假托해서 作意를 전달하는 文學修辭를 포함한 敘事體에 대한 범칭이다. 이런 특징을 전제로 하면서 우언 중에는 그 특별한 인물설정과 구성방식, 기본사상 등에 관련된 이야기형식이 후대로 지속, 계승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要術하면, 1) 두 대립되는 인물이 설정되어 2)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訓話하거나 罵倒하여 3) 특정한 사건, 관념 등에 此擬해서 4) 老莊의 立點에서 說理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를 임의로 〈莊子〉寓言의 이야기형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

曲者如予 鉞者如刀 說者如劍 岐者如戟 直者如矢 殺者如弓 此兵一動 百鬼夜哭 其相食之酷 孰甚於汝乎

장자》의 <盜跖篇> <在宥篇>과, 또 조선조의 <酒肆丈人傳>과 <寓言>이 포함된다. 물론 일견해도 <虎叱>의 여러 특성이 이 조건에 걸맞는다.

2. 《장자》우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두 대립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장자》우언에서는 長壽한 隱者가 대화주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때가 많다. 이럴 때 장수자는 老莊의 哲理의 현실적 體得者, 또는 完成者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논쟁상의 權威를 스스로 지니게 된다. 도척이나 범은 장수자와 같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맹수로서의 속성이나 무도한 도척과 같은 성격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도척이나 범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작가가 그 상대방을 卑俗化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꾸민 수사적 장치이다.

대화주도자의 상대역은 대개 이름난 학자이거나 정치가로 등장한다. 고도의 知的 論辯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설정이었을 것이다. 이는 《장자》우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판받는 자의 직업이나 취미 또는 학문적 경향에 관련되어 있다.

3. 《장자》우언은 두 대립되는 인물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화라고 하지마는 대개 노장적 인물이나 그로 상징화된 인물이 상대방 즉, 학자와 같은 자를 일방적으로 훈화하거나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구성과 대화방식을 洪大容의 《鑿山問答》에 관련시키고, 작품의 기본사상 역시 湖洛論爭으로 일컬어지는 人物性同異論에 접목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상 <의산문답>의 여러 특징들도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인물성동론으로 표현된 <호질>의 논변도 《장자》우언의 이야기형식상 특징이 되는 비유의 한 방법이다.

4. 《장자》우언은 그 처음 형성되었던 목적처럼 노장사상을 드러내는 문학양식으로 이용되었다. 대화식 구성의 논리적 설득력이나, 대화 주도자의 비유방식 등은 형이상학적 철리를 문학적 표현으로 드러내면서 주제의 심각성을 저해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호질>의 경우는 어떠한가가 問題가 된다.

이 점은 <호질>의 주제가 인간사회의 부조리 전반에 걸친 비판에 있다고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장자》우언을 쓴 것은, 이것이 관행적으로 노장사상을 발양시키는 목적에 활용된 점과, 이때의 노장사상이 원칙적으로 인위적 구축과 문명사회의 역기능에서 그 논리의 입점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호질>에서의 노장사상은 어떤 사안을 보는 기준과 원칙에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노장사상이 본 작품의 주제적 목적이 되지는 않았다. 굳이 소설 외적인 상황을 예상한다면, 연암의 경우 그러한 사회적 문명적 부조리를 직시하고 이를 근본부터 毀廢하여 새로운 실학시대의 정신문화를 개창하자는 作意가 깔렸는지도 모르겠다.